

EU 제2그룹의 사용가능 농약 재확인

EU에서 사용승인 갱신을 받기 위한 29개 유효성분에 대한 자체 55개 신청이 유럽위원회에서 허용가능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이 성분들은 총 31개의 유효성분으로 이루어진 제2그룹의 대표하는 것으로써 계속 사용이 검토될 예정이다. 지난 3월부터 서류가 제출되기 시작했으며 제출회사는 유효성분에 따라 2012년까지 최신자료가 포함된 추가자료를 제출하게 된다.

위원회는 각 회사로부터 제출된 신청서를 회원국들의 검토를 거쳐 아래의 리스트를 발표하였다. 재검토 신청을 안한 유효성분으로는 생장조정제인 cyclanilide 와 제초제인 cinidon-ethyl 이 있다.

유효성분	신청회사
2,4-D	Meghmani Organics Task Force/Nufarm
acibenzolar-S-methyl	Syngenta
amitrole	Nufarm
bentazone	BASF United Phosphorus Environ Netherlands/AgriChem Agchem Project Consulting/Sapec Agro
cyhalofop-butyl	Dow AgroSciences
diquat	Certiplant Syngenta Sharda Europe United Phosphorus Barclay Chemicals AgriChem Crop Protection
esfenvalerate	Sumitomo Chemical
famoxadone	DuPont
fenhexamid	Bayer CropScience
ferric phosphate	Bayer Neudorff
florasulam	Dow
flumioxazine	Sumitomo Chemical
flupyrsulfuron-methyl	DuPont
glyphosate	Monsanto/European Task Force
iprovalicarb	Bayer
isoproturon	BCS-CGNS Task Force/Nufarm Societe Financiere de Pontarlier Makhteshim-Agan Industries

유효성분	신청회사
lambda-cyhalothrin	Nufarm GAT Microencapsulation Oxon Italia SumiAgro Europe Task Force/DHD Consulting United Phosphorus Syngenta
metalaxyl-M	Syngenta
metsulfuron-methyl	GAT Microencapsulation United Phosphorus DuPont Nufarm Cheminova
Paecilomyces fumosoroseus	Certis USA
pocolinafen	BASF
prosulfuron	Syngenta
pymetrozine	Syngenta
pyraflufen-ethyl	Exponent International
pyridate	Belchim Crop Protection
sulfosulfuron	Monsanto
thiabendazole	Syngenta
thifensulfuron-methyl	GAT Microencapsulation Dupont Rotam Agrochemical Europe Cheminova
triasulfuron	Syngenta

출처 : European Commission

2011년 세계농약시장 전망

올해 전세계 농약시장은 라틴아메리카의 지속적인 성장을 앞세워 하반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결과적으로는 2011년 전체 판매액은 작년대비 12.7% 증가한 46,378백만달러를 기록했다. 농산물 가격의 상승이 농약사용량 증대에 주요 역할을 했다. 농약의 판매가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이고, 몇몇 약제의 경우에만 가격이 상승하였기에 재고량의 감소를 가져왔다.

위험요소로는 불안한 세계경기에 있다. 농약산업의 기반은 튼튼한 편이지만, 금융시장의 변화에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신용거래의 감소, 낮은 곡물수요, 농산물가격의 하락 등은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기후조건 역시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근래에 라틴아메리카의 작물재배 시기에 '라니냐 현상'이 가져온 건조기후가 그 예라 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과 환율을 고려한 전세계 농약시장은 실질적으로 8.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아메리카 2011년 시장의 판매는 4.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불안한 경제와 기후조건은 전망을 어렵게 하지만, 높은 곡물가격이 농가의 소득향상에 강한 기대감을 실어주면서 활황을 이끌었다. 다음으로 시장의 강세를 이끈건 올해 겪어본 번덕스러운 재배조건으로써 옥수수, 콩, 목화 및 밀 같은 주요작물의 생산량을 감소하게 만들었다. 이를 통해 이미 낮았던 곡물보유량은 더 감소하고, 농산물의 가격은 유지되었기에 농약산업은 큰 폭의 매출

■ 2011년 용도별 매출전망(\$m)

구 분	2010년	전년대비 증감	2011년
제초제	17,597	+11.8%	19,673
살충제	11,042	+11.5%	12,312
살균제	10,565	+15.9%	12,245
기타	1,956	+9.8%	2,148
총계	41,160	+12.7%	46,378

■ 2011년 지역별 매출전망(\$m)

구 분	2010년	전년대비 증감	2011년
북아메리카	9,191	+4.8%	9,632
남아메리카	9,707	+15.4%	11,200
서유럽	8,005	+13.5%	9,086
동유럽	1,591	+19.0%	1,893
극동지역	9,915	+15.7%	11,472
그 외 지역	2,751	+12.5%	3,095
총계	41,160	+12.7%	46,378

■ 2011년 작물별 매출전망(\$m)

구 분	2010년	전년대비 증감	2011년
곡류	6,368	+12.8%	7,220
목화	2,859	+15.2%	3,294
과수 및 채소	13,307	+12.6%	15,101
옥수수	3,443	+11.5%	3,779
캐놀라/유채	655	+13.1%	743
수도	3,740	+11.6%	4,162
콩류	4,307	+10.3%	4,698
사탕무	595	+12.0%	672
기타작물	5,886	+13.7%	6,709
총계	41,160	+12.7%	46,378

을 이끌 수 있었다.

콩과 옥수수의 경우 많은 지역에서 습한 날씨로 인해 뒤늦게 심겨졌고, 이 때문에 병해충

및 생산량 증대를 위한 살균제의 사용이 증가하였다. 겨울밀의 재배는 가뭄으로 인해 경작하지 못한 면적을 이용해 증가가 예상된다. 하지만, 목화분야의 경우 가격이 올라 재배면적이 늘어나지 않는 한 감소가 예상된다. 예상보다 낮은 중국의 섬유소비와 최근 늘어난 목화생산으로 인해 가격은 하락하였고 이에 따라 목화재배에 투입하는 농약사용량이 감소하였다. 더욱이 주요 목화생산지인 텍사스의 경우 고온, 심각한 가뭄 및 들불로 인해 재배면적이 감소하였기에, 발아후 제초제 및 낙엽제의 사용량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심각한 기후는 텍사스주 전체면적의 50% 이상을 폐농하게 만들었다. 또 다른 감소 원인은 에너지 및 비료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농가경영비의 상승에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은 높은 곡물가격으로 인해 어느정도 상쇄되었다.

캐나다의 농약시장의 경우 연초의 강우로 인해 작기에 영향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채와 밀의 재배면적 증가로 인해 큰 증가세를 나타냈다. 옥수수와 콩의 경우 역시 크게 성장하였다. 살균제의 사용은 올해에 만연한 병해들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지만 제초제의 경우 재고물량 소진을 위한 가격경쟁으로 인해 감소하였다.

라틴아메리카의 농약시장은 작물생육기에 접어들면서 큰폭으로 상승하였다. 농민들은 높은 곡물가격에 기대어 역사상 기록될만한 구매성향을 보여주었다. 많은 회사들은 연초 수요에 이어 작기에 다시 한번 호황을 맞이하였다. 신용구매의 폭 역시 넓어지면서 2011년 매출은

15.4% 늘어난 11, 200백만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모든 작물에서 골고루 재배면적이 늘어난 것에 기인한다. 이와 동시에, 유전자변형 종자와 같은 고가의 씨앗을 파종하면서 종자처리제의 수요가 증가한 것도 한가지 원인이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의 옥수수 재배면적은 올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미국에서의 생산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었기 때문이다. 몇몇지역은 콩재배를 포기하고 수익성이 나을것으로 예상되는 옥수수로 작목을 바꾸기도 하였다. 목화의 경우 약세로 인해 재배면적은 감소하였지만, 사탕수수와 커피는 높은 가격을 통해 성장세를 이어갔다. 제초제에 대한 수요는 대규모 경작지에서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glyphosate의 판매는 가격상승과 제초제 저항성 작물에 대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그간의 부진을 큰폭으로 만회했다. 살균제의 판매 역시 증가하였고, 살충제는 새로운 약제의 등장으로 인해 시장을 넓혀나갈 수 있었다. 라틴아메리카 시장에서의 위해요소로는 '라니냐 현상'의 발생인데, 이 때문에 브라질의 Mato Grosso와 같은 주요 곡창지대에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 기상학자들은 현재 '라니냐'는 중간급으로써 조만간 더 큰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서유럽의 농약판매는 지난 2분기의 기상악화를 견뎌내고 전년대비 13.5% 증가한 90억 8천6백만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곡물분야는 전반기 강세를 나타내었고 더욱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밀 수확량은 동유럽에서만 증가하였을뿐, 전세계적으로 곡물 재고량이 부족하며 미국과 서유럽의 흉작으로 인해 밀 수요가 증가하였다. 사료작물에 대한 수요는 특히 증가하여 밀이 가격이 오른 옥수수를 대체하기도 하였다. 곡물가격은 당분간은 현재의 시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겨울철 곡물의 재배면적이 급격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시장에 우호적인 환경은 살균제와 제초제의 사용을 가져올 것이고 신규약제가 시장에 안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유채에 대한 수요로 인해 프랑스와 영국에서 가격상승으로 재배면적이 늘었으나, 독일의 경우 기상여건상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옥수수 역시 살충제, 제초제 및 종자처리제 시장에서 좋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EU의 현 금융위기는 현지 농약시장이 튼실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유럽은 산업체 전체가 골고루 성장하여 전년대비 19% 상승한 1,893백만달러를 기록할 것이다. 곡물생산은 주요 생산국의 좋은 기후조건 및 재배면적 확대를 통해 올해 반등에 성공했다. 이는 농산물 가격의 상승과 농약의 수요 증대에 힘입어 이루어진 결과이다. 곡물분야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같은 주요 생산국을 통해 지역별로 증대되었다. 높은 옥수수가격으로 재배면적은 증대되고 이러한 활황은 지역시장에 대한 발전을 가져왔다. 높은 가격을 위해 농민은 더 많은 농약을 사용하였고, 다국적기업의 고가의 수입약제사용도 증가하였다.

극동지역의 경우 올해 전세계에서 2번째로 높은 성장세를 이루었으며 전년대비 15.7% 상승한 11,472백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세계는 현재 세계경제위기에 큰 영향을 받지만,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의 경제는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를 통한 작물생산량 증가를 위한 투자가 가속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농약시장은 올해 초 쓰나미와 지진의 피해로부터 서서히 회복하는 중이다. 하지만, 전체 매출은 특히 살균제와 살충제 분야에서 지난해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예측된다. 이는 부분적으로나마 제초제 시장이 새로운 약제와 제형을 통해 회복되고 있다. 이는 일본엔화의 강세로 결국 달러기준 매출성장도 포함된다.

중국의 경우 신흥시장에서 가장 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중국농민의 성향이 다국적기업의 공격적인 영업을 통해 농약사용을 통한 병해충 방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살충제 분야가 특히 혜택을 보고있으며, chlorantraniliprole 과 thiamethoxam 과 같은 새로운 약제가 보급되면서 유기인계와 카바메이트계의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살균제는 수확량과 양질의 농산물을 위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제초제의 경우 날씨에 따라 잡초발생이 경감함에 따라 크게 줄었다.

호주는 상반기에 강우와 대규모 경작지의 증가로 인해 많은 농약수요가 발생했다. 계절적인 조건도 작년에 비해 우수했고 하작물 재배가 확대됨으로써 연말에도 강세가 예상된다. ㊟